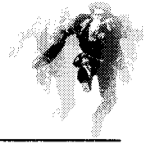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사이



관련단체장들과 회동

■ 임연학 회장은 최근 한의사협회, 한약협회, 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한약관련 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생약엑스제제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생산능가 피해와 도매시장 기능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규격화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앞으로도 관련단체들의 분기별 회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수렴된 의견을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 건의하는 등 관련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



계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홍화씨 출하준비** ■ 배성환 이사는 요즘 홍화의 수확 작업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홍화가 대개 7,8월 출하가 몰림으로서 시세하락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 배이사는 하우스에 속성재배, 5,6월에 수확할 예정이라고. **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오는 30일 상지대학교에서 '98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계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계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계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지부장회의 이모저모

지부회의시 주제 발표

○...지난4월 17일 오후2시 생약협회 회의실에서는 98년 제2차 전국도지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중 생약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남정확전무는 "도지부회의시 재배 기술이나 우량품종육성에 관한 주제발표회를 개최, 내용성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고 잘던 것은 하계 수련대회나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등을 통해 발표하고 생약보에 소개하자"는 안을 제안.

출자방법등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지금의 '안정기금심의위원' 명칭을 '재정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구성도 도지부장이 추천하는 각도 대표 1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황기재고량 소진방향

○...황기 재고량 소진방안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96년도산 황기(3만5천여근)는 최하한가 3천원 선에서 각 도지부별 분담 또는 시장판매키로 결정. 이밖에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부장회의는 분기 1회, 이사회 년 1,2회 회장단회의는 수시개최키로 하는 한편 접수된 지방공문에 대한 회신기한은 15일 이내에 신속처리키로 했다.

도매법인 설립 추진키로

○...수익사업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매법인 설립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차적으로 각도지부장이 추천하는 2인, 서울대표 2인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지부동정

엑스제 수입규제 '탄원' 경기도지부

경기도지부(지부장.김성배)는 지난 4월 24일 "생약재배농가들이 재배한 황기가 생산원가 이하에도 팔리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일부상인과 제약회사들이 식품과 제약원료(엑스제)를 마구 수입하여 애로사항이 많으니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정부에 탄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황기는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수급조절품목이나 그 적용대상은 약사법 적용을 받는 '한약재'이며 식품(식품원료)과 한약엑스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국제약협회로 하여금 국산약재 적극구매방안을 강구토록 협조요청했다"고 답변해 왔다.

국산 생약 품질검사 의뢰 전라북도지부

생약협회 전라북도 지부(지부장.이승엽)는 최근 전주시 소재 도공판장(국산한약재 상설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97년도산 국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품질검사 의뢰한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허용기준치 이하이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 지부장은 "무조건 우리것이 좋다는 식의 막연

한 신토불이 주장으로 '애국'에 호소하기 보다는 국산한약재 품질과 안전도를 확실하게 검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국산약재에 대한 큰 신리를 심어주기 위해 이같은 시험을 의뢰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지부에서 이번에 시험의뢰한 품목들은 황기, 당귀, 천궁, 작약, 산약등 국내 생산량도 많고 유통량도 많은 주소비 품목이다.

인사

「任」 △전남 해남군 사무소장 이경준(4월 23일부) △전남 여수시 공판장장 유영법 △전남 광양시 동부공판장장(5월 6일부)

「免」 △서울시 강남구 공판장장 조태수 △경북 상주시 서부 공판장장 이재문(4월1일부) △협회 중앙본부 사무국장 전근택 △협회 중앙본부 기획실장 조만식(4월 15일부) △전북 남원시 사무소장 안성홍(4월 24일부)

내방

△김홍범 사무관(농림부 체소특차과) △성낙술 박사(농진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김상현 부장(농민신문) △김성한 의약품 수출입협회 부회장 △이범용 서울시 한의사협회장 △윤석준(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박재문 이사 △허영감사(경북 김천시 공판장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정형모 부회장(전남도 지부장) △박종연 이사(경북 의성군 사무소장) △조광호 강원도 정선군 사무소장

이전

△이계용 경기도 광주 공판장장 주소이전(광주군 광주읍 역리 26-6에서 광주군 광주읍 역리 20-1호로)

판매합니다

△상황버섯(국산) 300kg 연락처 011-393-6909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 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구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 5. 한국생약보 발송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개인-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단체-13만원(연회비 12만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